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서 있는 아빠와 앉아있는 엄마

성당에 딸린 유치원의 선생님이었던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빠와 결혼을 했다. 그 시절의 아빠 역시 공무원이었으나 결혼 10년 후, 우여곡절 끝에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10년 넘게 시장에서 젊음을 보낸 아빠와 엄마. 자식들을 대학에 다 보내고 나서야 겨우 시장을 벗어나실 수가 있었다.

공부에 미련이 많으시던 아빠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당신이 하고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늘 허전해 하셨다.

선도 훨씬 넘으신 아빠를 보다 못해 나는 어느날인가부터 부추기기 시작했다. "아빠,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하세요. 우리가 도와 드릴게요"

드디어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인 아빠가 엄마의 새끼손가락을 걸어잡고 "성당에서 풍금을 치던 당신에게 채소전에서 폭삭 늙게 해서 미안하오. 늙은 내머리로 무슨 공부를 해 나가겠소마는 힘 달는데까지 공부해서 꼭 개신교 전도사가 되어 보겠소." 흰 머리칼의 부쩍 늘어난 엄마를 보면서 눈물로 약속하셨다.

공부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책을 읽느라 노상 밤을 새우시면서 피곤하셨을 텐데도 아빠의 얼굴을 더 젊어지셨다.

그런 2년 여의 세월이 흘러 아빠는 드디어 졸업을 하셨으며, 다시 1년여간 준비 끝에 전도사 시험에 합격하셨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아빠는 자그마한 시골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가게 되신 것이다. 워낙 작은 교회라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고 반주자도 없어 피아노는 교회 한 구석에서 먼지를 허옇게 뒤집어쓰고 있었다.

아빠가 엄마와의 약속을 이행하시던 날, 그 피아노 역시 임자를 만난 것이다. 아빠는 서서 설교를 하시고 엄마는 앉아서 피아노를 치게 되셨다.

"내 참, 피아노에 딱 앉어 보이 발이 굳는 것 같은기라. 옛날에 풍금 페달을 십 년 넘게 밟았다케도, 시장서 또 십 년 넘게 자전거 페달을 밟은 게 또 내 발이잖니. 그래, 한 곡을 겨우 치고 나니까 발이 부드러워지대. 그제야 정신이 들고 내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게 느껴지드라. 설교대 앞에서 서 있는 너그 아빠도 눈에 들어오고..."

엄마는 몹시 감격스러워서 울먹이기까지 했다. 약속을 지켜낸 아빠의 모습, 설교대 앞에 선 아빠와 피아노 앞에 앉은 엄마의 그 그림같은 모습으로 보러 조만간 빨리 시골교회에 가 보고 싶다



◀그땐 그랬지▶ 종이인형 옷 입히기  
 여자 아이들이 가위로 조심스레 오려 수영복에서부터 공주 드레스까지 각종 옷을 입히던 종이소녀인형. 어쩌다 가위로 목을 오리면 종이에 밥풀을 묻혀 붙여야 했던 스키타치 테이프도 귀한 시절에 공주가 되고픈 여자 아이들의 종이인형 놀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라 다이어나 공주를 마음에 두고 살다 그녀마저 떠난 자리에 어떤 소녀의 꿈을 채우고 있을런지요.  
 조심스레 오려대던 가위질에 입을 요리조리 빼죽대며 오리던 소녀들의 종이인형 같은 마음들이 새삼 그림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비보 같은 교회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림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2월29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일등이 아니라 이등이고 싶습니다.  
 작자미상



일등이 아닌 이등으로  
 일등이 아닌 이등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두 번째 친한 친구이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재중일 때 대신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께만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에게는 일등의 자리에,  
 하나님께는 이등의 자리에 있으려 하기에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여보! 나보다 먼저가면 안되요"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됐어요!"

◀아내 기 살리는 말▶  
 "여보!  
 다른 사람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 있지"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발라보면 뭘해. 그게 그 얼굴이지"

# 주 일 예배

(\* 표에 있어서이기 어려운 문은 없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 Gloria Calvary

회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성서의 선언 Proclaim  
 \*찬양 Hymn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환영의 시간 Welcome & Announcements

아리이 시간 Sunday School

찬양 Hymn 256장

기도 Prayer 38 (이사야 42)

성경말씀 Scripture Reading 사도신경

찬양 Hymn 32장

기도 Prayer 32장

찬양 Hymn 327장

기도 Prayer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찬양 Hymn 327장

영자	주일기도	원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찬양이
29	김민석	박병민	4구역	
7	김순자	박상용	5구역	
14	김영린	박신	6구역	
21	김종건	박재영	철년부	
28	노은숙	박정자	7구역	

◆2,3월의 예배위원◆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다 란 이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 찬양

## ▶좌편 시인들▶

-리영숙-

우리는 이제  
 그들만 우리가 했던 말들을  
 쓰지 않음지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  
 외롭다는 말

그리고  
 그렇다는 말

1. **교우소식**  
 <따뜻한 방문> 김종영 권사(신영화 집사 전정희), 교우 모두에게 국수를 받아  
 주일예배: 첫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첫 12시 | 철년부: 첫 저녁 7시
2. **부활절 물결 연아선경 쓰기**  
 \*양피지에 한자한자 기록했던 옛 선지자들의 성령받은,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물결을 보고 눈물지며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3. **오른은 "이사람기추영"**  
 \*한달동안 모은 "Silver Coin"을 물결하여 필리핀, 태국 2명과 한국 2명의 어린  
 이들에게 작은 모금의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4. **오늘 Tea Time**은 본교회의 행사관계로 예배당 뒤편에서 갖습니다  
 \*우학생을 위한 성경책 Donation (문의: 김미애 집사)  
 \*학생부에서 성경원기를 하려합니다. 이곳에서 교회생활하는 우학생들에게 없  
 는 것은 열에 걸쳐서 할 부모님 뿐 만이 아닙니다.  
 6. **수요예배 <수요영 저녁 7:30> "레위기강해"**  
 \*저도 목회생활중 처음으로 레위기를 강해해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긴장되어 무  
 상과 연구를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을 뵈기를 위하여 애태우기도 합니다. 함께 깨  
 으며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 **"3월의 큰 요새벽기도"**: 교우의 사랑을 위한 기도회  
 \*3월 한달의 큰 요새벽기도회는 화요일, 이만강소등 경제상황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교  
 우들의 사랑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중보기도기간으로 갖겠습니다.  
 8. **Tea Time** 후 설거지: 규모가 커진 설거지를 주만담양과 2명의 헌성교우모는  
 부축하여 구역별로 한 주간씩 봉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모장조)

\*묵묵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붙인다

"부모같은 교회" (장6:22)

\*3주간 예배, 전교장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린이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를 판단이 됩니다

면 타락에 사는 우리인데, 교우애가  
 피력이와 친구들이 아직도 교우의 등  
 꺾처럼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그렇다  
 는 말을 아껴 있었습니까.  
 다만 살아야 한다는 권이 더 커져,  
 아뢰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  
 는 안될 것 같아서 쉼쉴만한 침묵이 퍼  
 려지도록 참고 사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  
 외롭다는 말  
 그리고  
 그렇다는 말  
 권이고 싶습니다